

논문접수일 : 2012.03.13    심사일 : 2012.04.05    게재확정일 : 2012.04.26

##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에 관한 주관적 인식유형

The Subjective Perception Types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Neighbourhood-Making  
Project

주저자 : 김근호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Kim Keun-h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Yeungnam University

교신저자 : 이영창

이디아이 환경디자인 기술이사

**Lee Young-chang**

EDI INC. CTO

공동저자 : 이은영

영남대학교 대학원 산업인터랙션디자인과

**Lee, Eun-young**

Dept. of Industrial Interaction Design,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ersity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2.1. 주민참여의 필요성
  - 1.2.2. 주민참여의 유형과 방법

## 2. 연구 방법

- 2.1.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에 관한 인식유형 평가
  - 2.1.1. Q방법론에 의한 평가의 타당성 검토
  - 2.1.2. Q모집단 표집 및 Q표본의 선정
  - 2.1.3. P표본의 선정
  - 2.1.4. Q표본 분류 및 자료처리방법

## 3. 결과 및 고찰

- 3.1. 도출된 Q요인 - 행정전문가 의식측면
- 3.2. 도출된 Q요인 - 일반인 의식측면
- 3.3.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에 관한 인식 유형별 특성
  - 3.3.1. 전문가 의식 유형별 특성
  - 3.3.2. 일반인 의식 유형별 특성

## 4. 결론

- 4.1. 주민의 역할 - 주민참여의 확산
- 4.2.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역할
- 4.3. 정부 및 행정의 역할

## 참고문헌

## 논문요약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에 있어서 관련되는 행정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이 갖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행정전문가 의식에서 도출된 유형은 장기적 전략을 중시하는 유형, 주민 참여방안을 중시하는 유형, 정부주도를 중시하는 유형 등 세가지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인 의식에서 도출된 유형은 활동 참여를 중시하는 유형, 사업효과를 중시하는 유형, 장기적 전략을 중시하는 유형, 주민의견의 반영을 중시하는 유형 등 네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계되는 참여주체간의 원활한 파트너십 과정과 운영체계, 사업목적의 공유, 파트너십의 가치향상을 위한 참여주체간의 긴밀한 협조 통로와 같은 메커니즘의 확보와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Q방법론, 인식유형

## Abstract

The research aim is to find the subjective perception types on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neighbourhood-making project by the public and experts and to search for the development plan based on these types. To achieve this aim, this research uses Q-methodology. Three types extracted from experts's perception are a type which is focused on a long-term strategy, a type on citizen's participation, and a type on government leading. And there are four types from extracted from public perception : a type on an involvement, a type on business effectiveness, a type on a long-term strategy, and a type on reflection of residents' comments.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neighbourhood-making project needs having the partnership and the organization among participants, sharing the project purpose, securing the cooperation mechanism among participants, and improving the support system.

## Keyword

Citizen's Participation, Neighbourhood-Making, Perception Types, Q-methodology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사회는 시대적 발전과 더불어 삶의 질과 환경이 향상되었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지역중심의 적극적인 행정과 개발이 진행되면서 해당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현안과제 또는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 특히 자신들의 지역과 마을이라는 생활공간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을 모색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부각되고 있다. 주민참여의 마을만들기 수법은 최근에 들어 지역의 문제 및 지역의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받아들여져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업전개와 더불어 관련된 학술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제 및 추진주체에 대한 분석(전원식 등, 2008)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와 참여주체를 재분류함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참여 주체자간의 역할과 지원에 대한 제안을 통해 바람직한 마을만들기의 방향을 모색한 경우도 있으며, 마을만들기 운영사례 비교연구(목정훈과 박종현, 2008)에서는 자치구 단위의 제도와 행정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요내용과 성과, 주민참여 및 추진방식의 분석을 관점으로 주민으로부터 형성되는 주민협의회를 통한 적극적 참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계획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결과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 사업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과제들은 향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도 보다 다각적인 접근방법과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참여주체간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유형 및 특성 파악은 위에서 언급한 다각적인 접근방법의 일환으로서 연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의 인식과 태도 등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에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참여주체자인 행정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 등을 유형화함으로써 인식유형별 특성과 시사점을 밝혀내고 이를 고찰하여 각 참여주체가 들이 새롭게 가져야할 자세와 역할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 1.2.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2.1. 주민참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참여는 제도적 장치가 완성되어 있지 않아 일부로 국한되어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 주민참여의 통로가 마련된 것은 1981년 도시계획법개정을 통해 공청회와 공람제도가 도입되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더불어 도시정책의 권한위임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분적으로 참여의 기회가 신장되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 위주의 도시정책은 비록 법적으로 주민참여가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측면이 강했던(유수철, 2010) 것처럼, 초기 단계의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형태는 주로 열람 및 공청회 또는 설명회 참여와 같이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이러한 참여로 인해 제안된 의견조차도 묵살되었다. 그로인해 전문지식의 부족과 참여방식의 제한으로 행정에 무관심한 주민들의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의견은 사실상 배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의 전문화 및 기술화를 지향하고 행정의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며 주민들의 협조와 지시를 받아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박은영, 2008). 이러한 현상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적 문제가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갈 것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 어떠한 해결 방안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체적 시민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시민 스스로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 1.2.2. 주민참여의 유형과 방법

박대현(2009)에 의하면, 주민참여의 유형은 공청회, 공람, 주민설명회 등의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제도적 참여와 청원, 진정, 민원 등의 행정제도상 보장되어 있는 참여방식에 의한 준제도적 참여 그리고, 시위, 점거, 농성 등의 형태로 표현되는 비제도적 주민참여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한편 [표 1]과 같은(전원식 등 2008) 관점으로부터의 유형분류에서는, 주민참여는 참여 방식과 주도권에 따라 두 분류로 분류가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유형들은 능동적인 참여와 수동적 참여라는 구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분류          | 참여 유형       | 방법  | 공통사항             |
|-------------|-------------|---|------------------|
| 참여방식에 따른 분류 | 직·간접적 참여    | 실제적으로 참여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방식                          | 능동·수동적 참여로 구분 가능 |
|             | 개별적·집단적 참여  | 개인의 참여 또는 집단으로 참여하는 방식                              |                  |
| 주도권에 따른 분류  | 행정주도형 참여    |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관련법에 의한 보장되어 있거나 행정이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 |                  |
|             | 주민주도형 참여    | 주민들의 의해 이루어진 유형                                     |                  |
|             | 주민·외부지원 참여형 | 주민과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외부지원이 함께 참여하는 유형                 |                  |

[표 1] 주민참여의 유형과 방법

## 2. 연구 방법

### 2.1.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에 관한 인식 유형 평가

#### 2.1.1. Q방법론에 의한 평가의 타당성 검토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를 시행함에 있어 행정전문가 및 일반인의 의식을 유형화하기 위해 1953년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이 창안한 Q방법론(Q-methodology)을 적용하고자 한다. Q방법론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 획득한 태도와 지각 등의 의식을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방법론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특정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태도나 인지의 속성을 찾기 위해 인자분석방법이 적용되었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많은 역할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나, 연구 목적에 있어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에 대한 가치, 의식, 인지구조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인자분석방법에 의한 결과의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적 견해가 많았다(김순은, 2010). 반면, 한승주(2009)에 의하면 Q방법론은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특정집단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의식, 인지구조를 유사성에 따라 사람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Q 문항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을 통해 사람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유사한 사람들을 묶어서 몇 개의 집단을 발견해낸다. 변인들의 상관관계의 밀바탕에 깔려 있는 공통인자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요인분석과 비슷하지만 여기서의 변인은 사람이 되며, 요인분석은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들을 묶어서 공통인자를 찾지만 Q 방법론은 상관관계가 높은 사람들을 묶어서 공통인자들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특정집단의 사람들

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의식, 인지구조는 무엇이며, 다른 집단과는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인자분석방법을 사용하면 연구자는 특정 대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차원을 발견할 수 있지만, Q 방법론을 사용하면 연구자는 특정 대상에 대해 특정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최현철, 2007). 이러한 Q 방법론은 개인의 인식차이를 확인하고 유형화하는데 적합하고 개개인마다 다른 인식구조에 따른 유형의 이해가 가능하여(한승주, 2009), 다양한 연구를 통해 유용성이 밝혀졌으며 외국에서는 Q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가 언론학뿐 아니라 심리학, 정치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최현철, 2007). 특정 대상의 관점이나 의식과 같은 속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방법인 동시에 분석방법인 Q 방법론은 '외부로부터 설명'하는 것이 아닌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접근방법이며, 응답자 스스로 그들의 의견과 의미를 만들어가는 자결적 정의(operant definition)에 따라 연구자의 가정이 아닌 행위자의 관점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된다(김홍규, 2008). 그리고 Q 방법론은 자극이나 검사물 간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 간의 관계에 집중한다. Q 방법론이 인식, 의견, 선호, 이상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면 인자분석방법은 관찰할 수 있으며 측정(계량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김홍규(2008)에 의하면 [표 2]와 같이 통계학적으로 설명하면 인자분석방법에서의 변인은 측정항목이나 자극인데 반해 Q 방법론의 변인은 사람이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한 통계적 뒤바뀐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접근과 결과의 극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 Q 방법론의 데이터 구조 |      |      |      |     |      |
|---------------|------|------|------|-----|------|
|               | 응답자1 | 응답자2 | 응답자3 | ... | 응답자n |
| Q문항1          |      |      |      | ... |      |
| Q문항2          |      |      |      | ... |      |
| Q문항3          |      |      |      | ... |      |
| :             | :    | :    | :    | ... | :    |
| Q문항n          |      |      |      | ... |      |

  

| 인자분석방법의 데이터 구조 |     |     |     |     |     |
|----------------|-----|-----|-----|-----|-----|
|                | 변인1 | 변인2 | 변인3 | ... | 변인n |
| 응답자1           |     |     |     | ... |     |
| 응답자2           |     |     |     | ... |     |
| 응답자3           |     |     |     | ... |     |
| :              | :   | :   | :   | ... | :   |
| 응답자n           |     |     |     | ... |     |

[표 2] Q방법론과 인자분석의 데이터 구조적 차이

또한 Q방법론에 있어 각 항목의 의미는 경험적 (posteriori)인 것이지 선험적(a priori)인 성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규모의 표본(사람)은 오히려

불필요하다. 그 이유는 범주적 집합체(categorical aggregates)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요인 간의 차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요인 혹은 타입(type)이란 피험자의 행위에 의해 자결적으로 정의되며 이것은 일반 사회통계방법에서 필수적인 사회범주에 있어 주요 변인이 되는 것과는 매우 상이하다. 김홍규(2008)에 의하면, [표 3]과 같이 인자분석방법과 Q방법론은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서로 독립적이며 과학의 목적과 연구의 대상은 물론 이론적 가정과 측정방법 등에서 두 방법론은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Q방법론은 본 연구에서의 행정전문가 및 일반인의 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며 그들의 의견, 관념, 인식을 유형화하고 객관적으로 총체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 인자분석방법                                    | Q 방법론   |
|----------|---|---|
| 연구대상     | 관찰할 수 있고 계량화 할 수 있는 객관적 현상                | 의견, 관점, 진념, 선호, 이미지 등                                       |
| 연구대상의 특성 | 정보, 필요, 합리성, 설득                           | 커뮤니케이션, 요구, 점서적   |
| 변인       | 인간의 인구학적, 심리적 특성 등                        | 사람  |
| 측정방법     | 외부로부터 설명 :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 내부로부터의 이해 : 자결적 정의 (operant definition)                     |
| 이론적 가정   | 변인에 관한 개인 간의 차이 (individual difference)   | 의미성에 있어 개인 내의 차이 (intra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 |
| 과학적 목적   | 가설 검증을 통한 일반화 (generalization)            | 가설생성(abduction)과 이론 확인과 검증                                  |
| 과학논리     | 귀납, 연역                                    | 가설생성  |
| 작동원리     | 사회 통제(social control)                     | 수렴적 선택성(convergent selectivity)                             |
| 자아태도     | 자아의 하강, 거절(self-decline)                  | 자아 고양(self-enhancement)                                     |
| 커뮤니케이션   | 커뮤니케이션 고통                                 | 커뮤니케이션 만족   |
| 자아구조     | me/I                                      | mine/me   |
| 가치구조     | 도구적 가치                                    | 본질적 가치  |

[표 3] Q방법론과 인자분석방법의 비교분석표

### 2.1.2. Q모집단 표집 및 Q표본의 선정

Q모집단(Q population)이란 연구를 위해 수집된 항목의 집합체로서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의견의 총체인 통합체(concourse)의 개념과도 동일하다. 그리고 Q 표본이란 Q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항목을 의미한다(신복기와 이재환, 2010). 먼저, Q모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되는 문헌조사를 진행하여 145개의 진술문을 선정하고, 관련전문가와와의 3차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해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33개 항목을 [표 4]와 같이 Q표본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 Q 항목 |   |
|------|---|
| 1    | 지역의 주민참여이후의 평가를 통한 진단과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이 필요하다. |
| 2    | 주민협의체나 위원회구성을 통한 지속적인 모임과 토의가 필요          |

|    |  |
|----|--|
|    | 하다.  |
| 3  | 장기적인 전략에 의한 지역 공간재생이 중요하다.                       |
| 4  | 어메니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 5  |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중요하다.                         |
| 6  | 관이 주도하는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
| 7  | 점점 시민들의 여가와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져갈 것이다.         |
| 8  |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반영이 필요하다.           |
| 9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 10 | 관광수익증대와 지역이미지향상이 지역개발의 큰 중점목표가 되어야 한다.           |
| 11 | 누구나 쉽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하여야 한다.            |
| 12 | 주민의 수익과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모색이 필요하다.               |
| 13 | 시설개발 중심에서 시민이용 프로그램개발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
| 14 | 마을 만들기에서 문화나 축제는 지속적이어야 하고 진화가 있어야 한다.           |
| 15 | 참여자들의 참여이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
| 16 | 건물 등 역사적 자산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
| 17 | 아직도 경쟁력있는 도시 어메니티 발굴이 미흡하다.                      |
| 18 | 이벤트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
| 19 | 어메니티를 우리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 20 | 주민조직의 활동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한다.          |
| 21 | 정부가 아닌 시민조직에 의해 지역이 관리, 개선되어야 한다.                |
| 22 | 정부의 예산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
| 23 | 문화예술의 다양한 행위를 통하여 도시공간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    |
| 24 | 전문가 의견과 지역민 욕구의 효과적 반영방안이 중요하다.                  |
| 25 | 주민 활동제한 공모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 26 | 지방공공단체, 관련기관, 학계, 민간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               |
| 27 | 지역색을 충분히 표현하고 지역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 발굴이 필요하다.       |
| 28 |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개선노력이 중요하다.                           |
| 29 | 어메니티는 단순히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요소가 아니라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적자원이다. |
| 30 | 조직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 범인화가 필요하다.                   |
| 31 | 주기적인 주민교육이 필요하다.                                 |
| 32 | 주민의 애착심과 마을 만들기 동력유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 33 |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여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

[표 4] Q방법론과 인자분석방법의 비교분석표

한편, 김용득과 강희설(2008)에 의하면, Q방법론에서의 진술문은 사람들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을 해석함으로써 그 의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도구로써 ‘자아 지시적(self-referent) 진술문’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자아지시성이란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관한 진술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33개의 진술문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진술문에 있어서 주어는 생략하였으나 모두 자아 지시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피험자의 이해가 가능한 회화체를 유지하였으며 하나의 진술문은 각각의 독립된 아이디어 성격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33개의 진술문은 [표 5]와 같이 추진주체별 분류로 구분이 가능함과 동시에 세부항목

으로 분류할 수 있다.

| Q 항목           |    |  |
|----------------|----|--|
|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역할 | 1  | 지역의 주민참여이후의 평가를 통한 진단과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이 필요하다.          |
|                | 5  |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중요하다.                           |
|                | 9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                | 14 | 마을 만들기에서 문화나 축제는 지속적이어야 하고 진화가 있어야 한다.             |
|                | 19 | 어메니티를 우리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                | 24 | 전문가 의견과 지역민 욕구의 효과적 반영방안이 중요하다.                    |
| 지역주민의 역할       | 27 | 지역색을 충분히 표현하고 지역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발굴이 필요하다.          |
|                | 2  | 주민협의체나 위원회구성을 통한 지속적인 모임과 토의가 필요하다.                |
|                | 6  | 관이 주도하는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
|                | 12 | 주민의 수익과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모색이 필요하다.                 |
|                | 15 | 참여자들의 참여이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
|                | 20 | 주민조직의 활동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한다.            |
|                | 21 | 정부가 아닌 주민조직에 의해 지역이 관리, 개선되어야 한다.                  |
|                | 28 |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개선노력이 중요하다.                             |
|                | 30 | 조직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 법안화가 필요하다.                     |
|                | 32 | 주민의 애착심과 마을 만들기 동력유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 정부 및 행정조직의 역할  | 3  | 장기적인 전략에 의한 지역 공간재생이 중요하다.                         |
|                | 8  |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반영이 필요하다.             |
|                | 11 | 누구나 쉽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하여야 한다.              |
|                | 16 | 건물 등 역사적 자산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
|                | 18 | 이벤트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
|                | 22 | 정부의 예산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
|                | 25 | 주민 활동제한 공모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                | 26 | 지방공공단체, 관련기관, 학계, 민간의 협력 체제가 중요하다.                 |
|                | 31 | 주기적인 주민교육이 필요하다.                                   |
|                | 33 |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여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
| 도시어메니티와의 연계성   | 7  | 점점 주민들의 여가와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져갈 것이다.           |
|                | 10 | 관광수익증대와 지역이미지향상이 지역개발의 큰 중점목표가 되어야 한다.             |
|                | 17 | 아직도 경쟁력있는 도시 어메니티 발굴이 미흡하다.                        |
|                | 23 | 문화예술의 다양한 행위를 통하여 도시공간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      |
| 기타             | 29 | 도시 어메니티는 단순히 주민삶의 질을 개선하는 요소가 아니라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적자원이다. |
|                | 4  |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                | 13 | 시설개발 중심에서 주민이용 프로그램개발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

[표 5] Q표본으로 선정된 설문문의 추진주체별 분류

### 2.1.3. P표본의 선정

김홍규(2007)에 의하면 P표본(P sampling)이란, Q 분류(한 응답자가 Q 표본을 분류하는, 다시 말해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응답자 혹은 피험자를 말한다. Q방법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사람이 변인이지 표

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험자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요인들 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데 이는 개인 간의 차이(inter-individual)가 아니라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다루는 것이므로 피험자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피험자가 많은 경우 각 항목의 점수들은 평균값으로 회귀하여 다른 요인들을 한두 개의 요인으로 편중되어 그 특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통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P표본은 행정전문가(도시계획,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의 직종에 임하는 공무원) 11명과 일반인(시민) 15명을 대상으로, 행정전문가 의식측면에서의 유형과 일반인 의식측면에서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P표본으로서 응답하는 피험자의 기본적 분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일련의 마을만들기 사례로서 알려져 있는 3개 지역(대구광역시, 경남 통영시, 광주광역시 북구)의 행정전문가(대구광역시:4명, 경남 통영시:4명, 광주광역시 북구:3명) 총11명을 행정전문가로서 선정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자(73%), 여자(27%)이며, 경력으로는 5년~10년(18%), 10년~15년(46%), 15년 이상(36%)로 분포되었다. 한편 일반인의 경우는, 동일한 3곳에서 각각 5명씩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자(47%), 여자(53%)이며, 연령대는 20대층(34%), 30대층(40%), 40대층(13%), 50대층 이상(13%)로 분포되었다.

### 2.1.4. Q표본 분류 및 자료처리방법

김근숙(2009)에 의하면, Q표본 분류(Q sorting)란 P표본으로 선정된 각 대상자가 특정의 주제나 상황에 관한 자신의 마음 속 태도를 스스로 모형화 시키는 것으로 진술문을 읽은 뒤 그 진술문들을 강제분포(forced-distribution)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표 6]과 같이 Q표본 분류에서의 강제분포는 특정항목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Q표본들이 한 사람 안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각 표본은 전체적인 시각 속에서 특정항목의 상대적 의미와 중요도에 따른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조사에서의 Q분류 분포도는 가장 동의하지 않는 문항부터 -4를 2칸, -3은 3칸, -2는 4칸, -1은 5칸으로 구성하고 가장 동의하는 문항부터 +4를 2칸, +3은 3칸, +2는 4칸, +1은 5칸으로 구성하였으며 0은 5칸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자료처리는 P표본으로 선정된 25명에 대한 분류가 완성된 후 수집된 자료를 점수화 하기위해 Q 표본을 분류한 분포도에서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경우(-4)를 1점으로 시작하여 중립인 경우(0) 5점, 가장 동의

하는 경우(+4)는 9점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점수화하였고, 부여된 점수를 진술문 번호순으로 코딩한 후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점 수  | Disagree |    |    | Neutral |   |   | Agree |   |   |
|------|----------|----|----|---------|---|---|-------|---|---|
|      | -4       | -3 | -2 | -1      | 0 | 1 | 2     | 3 | 4 |
| 칸의 수 | 2        | 3  | 4  | 5       | 5 | 5 | 4     | 3 | 2 |

[표 6] Q분류 분포의 모양

### 3. 결과 및 고찰

#### 3.1. 도출된 Q요인 - 행정전문가 의식측면

먼저 Q분석에는 판단적(varimax)회전방법으로 요인의 값을 회전시켰으며 모든 Q분류의 평균값은 5.00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모두가  $s=2.2019$ 로 나타나 Q분포와 코딩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과 같이 3가지 유형의 고유값이 1.500 이상의 고득점을 보아 이 요인들은 독립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별 설명변량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본 Q방법론에서는 설명변량과 누적변량에 대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표 8]과 같이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요인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계수( $r$ )를 나타낸 것으로 본래, 수치가 높을수록 상관이 깊다는 의미이고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독립적인 관계임을 의미한다. 일반 통계방법에서는 요인 간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Q방법론에서는 높은 상관계수가 반드시 두 요인 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의 상관계수들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 요인이 상호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9]와 같이 3가지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유형의 특징을 정의하는 주요 P표본과 인자가중치를 확인할 수 있다.

|                  |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
| 고유값 (Eigenvalue) | 1.8914 | 1.5700 | 1.6190 |
| 설명변량비율           | 0.1719 | 0.1427 | 0.1580 |
| 누적설명변량비율         | 0.1719 | 0.3147 | 0.4727 |

[표 7] 유형별 고유값과 변량의 비율 - 전문가 의식

|      |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
| 제1유형 | 1.000 | 0.140  | 0.401  |
| 제2유형 | 0.140 | 1.000  | -0.406 |
| 제3유형 | 0.401 | -0.406 | 1.000  |

[표 8] 유형간의 상관관계 계수 - 전문가 의식

| Type 1 (N=4) |               | Type 2 (N=6) |               | Type 3 (N=1) |               |
|--------------|---------------|--------------|---------------|--------------|---------------|
| Subject No.  | Factor weight | Subject No.  | Factor weight | Subject No.  | Factor weight |
| 4            | 0.8669        | 1            | 0.3405        | 10           | 0.7203        |
| 7            | 0.9844        | 2            | 0.0043        |              |               |
| 8            | 0.9535        | 3            | 0.0759        |              |               |
| 9            | 0.5120        | 5            | 0.7891        |              |               |
|              |               | 6            | 1.5347        |              |               |
|              |               | 11           | 0.3338        |              |               |

[표 9] 유형별 분포와 인자가중치 - 전문가 의식

#### 3.2. 도출된 Q요인 - 일반인 의식측면

일반인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Q표본은 전문가 의식조사에서 적용되었던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여 두 그룹 간의 의식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10]과 같이 4가지 유형의 고유값이 1.500 이상의 고득점을 보아 이 요인들은 독립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은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계수( $r$ )를 나타낸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상관이 깊다는 의미이고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독립적인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유형 간 상관관계계수에서는 유형 1과 유형 3이 -0.01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유형 2과 유형 3이 0.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일반인 의식측면에서는 [표 12]와 같이 4가지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유형의 특징을 정의하는 주요 P표본과 인자가중치를 확인할 수 있다.

|                  |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   |
|------------------|--------|--------|--------|--------|
| 고유값 (Eigenvalue) | 2.7954 | 2.3975 | 1.2950 | 1.1284 |
| 설명변량비율           | 0.3670 | 0.3148 | 0.1700 | 0.1482 |
| 누적설명변량비율         | 0.3670 | 0.6818 | 0.8518 | 1.0000 |

[표 10] 유형별 고유값과 변량의 비율 - 일반인 의식

|      |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  |
|------|--------|--------|--------|-------|
| 제1유형 | 1.000  | -0.162 | -0.010 | 0.102 |
| 제2유형 | -0.162 | 1.000  | 0.227  | 0.099 |
| 제3유형 | -0.010 | 0.227  | 1.000  | 0.098 |
| 제4유형 | 0.102  | 0.099  | 0.098  | 1.000 |

[표 11] 유형간의 상관관계 계수 - 일반인 의식

| Type 1(N=6) |               | Type 2(N=4) |               | Type 3(N=3) |               | Type 4(N=2) |               |
|-------------|---------------|-------------|---------------|-------------|---------------|-------------|---------------|
| No.         | Factor weight |
| 2           | 0.8099        | 8           | 1.5638        | 1           | 0.6654        | 6           | 0.9138        |
| 3           | 0.8117        | 9           | 1.7567        | 5           | 0.8722        | 7           | 0.9906        |
| 4           | 0.9026        | 14          | 1.1991        | 10          | 0.9570        |             |               |
| 11          | 0.9433        | 15          | 0.8263        |             |               |             |               |
| 12          | 2.3065        |             |               |             |               |             |               |
| 13          | 0.7223        |             |               |             |               |             |               |

[표 12] 유형별 분포와 인자가중치 - 일반인 의식

### 3.3.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에 관한 인식 유형별 특성

#### 3.3.1. 행정전문가 인식 유형별 특성

Q표본 분류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Q요인은 지역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에 관하여 유사한 의견이나 생각을 갖는 행정전문가들의 집단을 분류한 것이므로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1) 유형1 : 장기전략 중시 유형

유형1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방향의 항목에 동의하였는데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마을 만들기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으로 장기적인 전략에 의한 지속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Q항목 9번)이 표준점수 1.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공공단체, 관련기관, 학계, 민간의 협력체제가 중요하다(Q항목 26번), 장기적인 전략에 의한 지역 공간재생이 중요하다(Q항목 3번), 정부의 예산지원이 가장 중요하다(Q항목 22번)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부정적 점수를 받은 항목에서도 그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부정적 항목에서는 조직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 법인화가 필요하다(Q항목 30번)이 표준점수 -2.4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정부가 아닌 시민조직에 의해 지역이 관리, 개선되어야 한다(Q항목 21번),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Q항목 5번) 등 장기적 전략과는 거리가 있는 세부적인 문항들이 부정적 동의군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유형1에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표준점수는 [표 13]과 같다.

| 문항 | 진술문  | 표준점수  |
|----|--|-------|
| 9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1.83  |
| 26 | 지방공공단체, 관련기관, 학계, 민간의 협력 체제가 중요하다.             | 1.52  |
| 3  | 장기적인 전략에 의한 지역 공간재생이 중요하다.                     | 1.48  |
| 22 | 정부의 예산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 1.45  |
| 29 | 어메니티는 단순히 시민삶의 질을 개선하는 요소가 아니라 역발전전략의 핵심적자원이다. | -1.02 |
| 10 | 관광수익증대와 지역이미지향상이 지역개발의 큰 중점목표가 되어야             | -1.08 |
| 12 | 주민의 수익과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모색이 필요하다.             | -1.30 |
| 5  |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중요하다.                       | -1.63 |
| 21 | 정부가 아닌 시민조직에 의해 지역이 관리, 개선되어야 한다.              | -1.85 |
| 30 | 조직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 법인화가 필요하다.                 | -2.44 |

[표 13] 유형1에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 (2) 유형2 : 주민 참여방안 중시 유형

유형2의 경우, 주민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여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야한다(Q항목 33번)이 표준점수 2.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가 아닌 시민조직에 의해 지역이 관리, 개선되어야 한다(Q항목 21번)이 두 번째로, 관이 주도하는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Q항목 6번), 누구나 쉽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해야한다(Q항목 11번)의 순으로 나타나 긍정적 동의군의 모든 항목이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중시하는 항목들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동의군에서는 어메니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Q항목 4번)이 표준점수 -1.8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조직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법인화가 필요하다(Q항목 30번), 아직도 경쟁력 있는 도시 어메니티 발굴이 미흡하다(Q항목 17번) 등의 순위를 보면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 향상을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긍정적 동의군에서 나타난 주민 참여방안 중시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다. 유형2에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표준점수는 [표 14]와 같다.

| 문항 | 진술문                                      | 표준점수  |
|----|--|-------|
| 33 |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여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 2.19  |
| 21 | 정부가 아닌 시민조직에 의해 지역이 관리, 개선되어야 한다.        | 1.70  |
| 6  | 관이 주도하는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 1.67  |
| 11 | 누구나 쉽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하여야 한다.    | 1.67  |
| 25 | 주민 활동제한 공모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1.13 |
| 18 | 이벤트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 -1.40 |
| 17 | 아직도 경쟁력있는 도시 어메니티 발굴이 미흡하다.              | -1.60 |
| 30 | 조직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 법인화가 필요하다.           | -1.62 |
| 4  | 어메니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1.86 |

[표 14] 유형2에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 (3) 유형3 : 정부주도 중시 유형

유형3의 경우, 어메니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Q항목 4번)과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Q항목 22번)이 표준점수 1.82의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번째 유형과는 반대로 질적 향상보다는 양적 확장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주민조직보다는 정부의 주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부정적 동의군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정부가 아닌 시민조직에 의해 지역이 관리, 개선되어야 한다(Q항목 21

번)과 주민조직의 활동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한다(Q항목 20번)이 표준점수 -1.82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정부의 주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방법론에서 Q분류는 다수의 항목 중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순으로 강제분류를 시행하므로 부정적 동의군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하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부정적 동의군에 나타난 시민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항목은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지만,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3에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표준점수는 [표 15]와 같다.

| 문항 | 진술문                                      | 표준점수  |
|----|--|-------|
| 4  | 어메니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1.82  |
| 22 | 정부의 예산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 1.82  |
| 3  | 장기적인 전략에 의한 지역 공간재생이 중요하다.               | 1.36  |
| 9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1.36  |
| 17 | 아직도 경쟁력있는 도시 어메니티 발굴이 미흡하다.              | 1.36  |
| 2  | 주민협의체나 위원회구성을 통한 지속적인 모임과 토의가 필요하다.      | -1.36 |
| 11 | 누구나 쉽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하여야 한다.    | -1.36 |
| 8  |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  | -1.36 |
| 20 | 주민조직의 활동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 -1.82 |
| 21 | 정부가 아닌 시민조직에 의해 지역이 관리, 개선되어야 한다.        | -1.82 |

[표 15] 유형3에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 3.3.2. 일반인 의식 유형별 특성

Q표본 분류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가지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Q요인은 지역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에 관하여 유사한 의견이나 생각을 갖는 일반인들의 집단을 분류한 것이므로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1) 유형1 : 활동 참여 중시유형

유형1의 경우, 마을만들기 운동을 위해 협력체제 구축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활동예산 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산·민·학·연의 협력적인 활동 참여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공공단체, 관련기관, 학계, 민간의 협력 체제가 중요하다.(Q문항 26번)이 표준점수 1.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이 주도하는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Q문항 6번), 주민조직의 활동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한다(Q문항 20번) 등의 순으로 나타나 협력적이고 자발적인 활동과 참여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 법인화가 필요하다(Q문항 30번), 주기적인 주민교육이 필요하다(Q문항 31번), 장기적인 전략에 의한 지역 공간재생이 중요하다(Q문항 3번) 등은 가장 낮은 표준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유형1에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표준점수는 [표 16]과 같다.

| 문항 | 진술문  | 표준점수  |
|----|--|-------|
| 26 | 지방공공단체, 관련기관, 학계, 민간의 협력 체제가 중요하다.               | 1.97  |
| 6  | 관이 주도하는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 1.70  |
| 20 | 주민조직의 활동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한다.          | 1.64  |
| 22 | 정부의 예산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 1.60  |
| 29 | 어메니티는 단순히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요소가 아니라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적자원이다. | 1.09  |
| 16 | 지역의 역사적 자산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 1.03  |
| 25 | 주민 활동제한 공모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1.07 |
| 9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1.07 |
| 1  | 지역의 주민참여이후의 평가를 통한 진단과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이 필요하다.        | -1.08 |
| 14 | 마을 만들기에서 문화나 축제는 지속적이어야 하고 진화가 있어야 한다.           | -1.27 |
| 3  | 장기적인 전략에 의한 지역 공간재생이 중요하다.                       | -1.52 |
| 31 | 주기적인 주민교육이 필요하다.                                 | -1.55 |
| 30 | 조직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 법인화가 필요하다.                   | -1.81 |

[표 16] 유형1에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 (2) 유형2 : 사업효과 중시유형

유형2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의 결과로 상권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 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업효과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중요하다(Q문항 5번)이 1.80의 가장 높은 표준점수를 나타내었고, 점점 시민들의 여가와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져갈 것이다(Q문항 7번), 지역의 주민참여이후의 평가를 통한 진단과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이 필요하다(Q문항 1번)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광수익증대와 지역이 미지향상이 지역개발의 큰 중점목표가 되어야 한다(Q문항 10번)이 긍정적 동의군에 포함되어 있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중시하고 있었다. 반면, 부정적 동의군에서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업효과와는 거리가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주기적인 주민교육이 필요하다(Q문항 31번), 주민의 애착심과 마을 만들기 동력유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Q문항 32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2에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표준점수는 [표 17]과 같다.

| 문항 | 진술문  | 표준점수  |
|----|--|-------|
| 5  |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중요하다.                         | 1.80  |
| 7  | 점점 시민들의 여가와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져갈 것이다          | 1.78  |
| 1  | 지역의 주민참여이후의 평가를 통한 진단과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이 필요하다         | 1.42  |
| 8  |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           | 1.37  |
| 2  | 주민협의체나 위원회구성을 통한 지속적인 모임과 토의가 필요하다.              | 1.24  |
| 10 | 관광수익증대와 지역이미지향상이 지역개발의 큰 중점목표가 되어야 한다            | 1.08  |
| 28 |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개선노력이 중요하다.                           | -1.27 |
| 27 | 지역색을 충분히 표현하고 지역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발굴이 필요하다         | -1.34 |
| 29 | 어메니티는 단순히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요소가 아니라 지역 발전전략의 핵심적자원이다 | -1.58 |
| 32 | 주민의 애착심과 마을 만들기 동력유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1.82 |
| 31 | 주기적인 주민교육이 필요하다.                                 | -1.90 |

[표 17] 유형2에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3) 유형3 : 장기전략 중시유형

유형3의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개발과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각계의 의견반영 방안 등 장기적인 전략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Q문항 9번), 지역색을 충분히 표현하고 지역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발굴이 필요하다(Q문항 27번), 전문가 의견과 지역민 욕구의 효과적 반영방안이 중요하다(Q문항 24번)이 각각 표준점수 1.95, 1.83,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반영이 필요하다(Q문항 8번)도 +1.00 이상의 긍정적 동의군에 속해있어 긍정적 동의군의 모든 문항이 장기적인 전략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3에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표준점수는 [표 18]과 같다.

| 문항 | 진술문   | 표준점수  |
|----|---|-------|
| 9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1.95  |
| 27 | 지역색을 충분히 표현하고 지역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발굴이 필요하다.       | 1.83  |
| 24 | 전문가 의견과 지역민 욕구의 효과적 반영방안이 중요하다.                 | 1.74  |
| 6  | 관이 주도하는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 1.15  |
| 8  |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반영이 필요하다.          | 1.11  |
| 13 | 시설개발 중심에서 시민이용 프로그램개발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 -1.16 |
| 33 |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여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 -1.30 |
| 30 | 조직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 법인화가 필요하다.                  | -1.33 |
| 25 | 주민 활동제한 공모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1.40 |
| 23 | 문화예술의 다양한 행위를 통하여 도시공간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야한다     | -1.47 |
| 17 | 아직도 경쟁력있는 도시 어메니티 발굴이 미흡하다.                     | -1.78 |
| 29 | 어메니티는 단순히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요소가 아니라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적자원이다 | -2.35 |

[표 18] 유형3에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4) 유형4 : 주민의견 반영 중시유형

유형4의 경우, 주민의 의견과 욕구의 반영노력과 방안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점 시민들의 여가와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져갈 것이다(Q문항 7번)은 표준점수 2.21의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누구나 쉽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하여야 한다(Q문항 11번), 주민의 애착심과 마을 만들기 동력유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Q문항 32번),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반영이 필요하다(Q문항 8번) 등으로 나타나 모두가 주민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4에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표준점수는 [표 19]와 같다.

| 문항 | 진술문                                     | 표준점수  |
|----|---|-------|
| 7  | 점점 시민들의 여가와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져갈 것이다 | 2.21  |
| 11 | 누구나 쉽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하여야 한다    | 1.37  |
| 32 | 주민의 애착심과 마을 만들기 동력유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1.15  |
| 8  |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  | 1.11  |
| 13 | 시설개발 중심에서 시민이용 프로그램개발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 1.08  |
| 10 | 관광수익증대와 지역이미지향상이 지역개발의 큰 중점목표가 되어야 한다   | -1.35 |
| 19 | 어메니티를 우리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1.37 |
| 20 | 주민조직의 활동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 -1.39 |
| 4  | 어메니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1.92 |
| 3  | 장기적인 전략에 의한 지역 공간재생이 중요하다.              | -1.95 |

[표 19] 유형4에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4. 결론

Q 방법론에 의한 분석 결과, 행정전문가의 의식은 서로 다른 3개의 유형으로 발견되었다. 제1유형인 ‘장기전략 중시형’에서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방향의 항목에 동의하였는데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마을 만들기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으로 장기적인 전략에 의한 지속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제2유형인 ‘주민 참여방안 중시형’에서는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 향상을 중시하고 있었으며 주민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3유형인 ‘정부주도 중시형’에서는 시민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항목보다는 정부의 역할과 지원에 의한 정부의 주도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인 의식 연구결과 4개의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제1유형인 ‘활동 참여 중시형’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협력체제 구축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활동예산 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산·민·학·연의 협력적인 활동 참여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2유형은 ‘사업효과 중시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결과로 상권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 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업효과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은 ‘장기전략 중시형’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개발과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각계의 의견반영 방안 등 장기적인 전략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4유형은 ‘주민의견 반영 중시형’으로 주민의 의견과 욕구의 반영노력과 방안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그룹간의 의식유형에서 공통적인 유형으로 전문가 의식유형 중 제1유형과 일반인 의식유형 중 제3유형이 모두 ‘장기전략 중시형’이 있었으며, 두 그룹간에 유사한 유형으로 전문가 의식유형의 제2유형인 ‘주민 참여방안 중시형’과 일반인 의식유형의 제4유형인 ‘주민의견 반영 중시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주민 참여형 마을만들기에 대한 의식분석의 결과, 종합으로 장기전략 중시형, 주민참여방안 중시형, 정부주도 중시형, 활동 참여 중시형, 사업효과 중시형, 장기전략 중시형, 주민의견 반영 중시형 등, 총 7가지의 유형을 밝힐 수 있었고 추출된 유형의 의미는 지역개발의 장기적인 관점과 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마을만들기의 개선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며,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3위 일체가 되어 각 영역별로 역할분담 체계 속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 주체들이 가져야 할 역할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었다.

#### 4.1. 주민의 역할 - 주민참여의 확산

주민참여는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가 아닌 ‘참여’ 속에서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고,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전환되며,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도 고민하면서 ‘혼자가 아닌 함께’를 배우게 되는 과정이다. 주민참여의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토론과 의견수렴이 가능한 장소를 만들어 의견교환이 원활히 이를 수 있는 자리매김이 중요

하다. 또한 긍정적으로 의견을 모아 나가기 위해, 그동안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으로 애용해 소수의견을 소외시키는 다수결 원칙은 되도록 자제함으로써 다양한 의견, 즉 소수의 의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참여시대의 의사결정 방법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참여에 있어 주민 내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목표 설정 없는 형식적인 참여는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의 지속성도 저하될 뿐 아니라 참여도 역시 저조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목표설정 그 자체를 토론이나 의견수렴을 통하여 참여자 스스로에 의해 설정된다면, 그 달성을 위한 노력을 보람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주민참여에는 주민들의 참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보람된 목표가 설정되어야 지속적인 마을만들기가 운영될 수 있다.

#### 4.2.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역할

현재 주민참여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회적 합의가 용이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여 현안을 개량하거나 방향, 즉 방법을 바꿀 수 있는 해결책 등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주민참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확대 및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민단체는 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는 다리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행정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가능한 활동들을 기획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참여의 결과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야 한다. 시민단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인 주민보다는 객관적일 수 있고 주민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전문가나 주민, 행정 등의 개별화된 관심을 묶어주고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4.3. 정부 및 행정의 역할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 방안을 도입하여 초기에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관리 시에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게 하거나 계획사항의 이행여부를 검토·감시하는 기능을 주민들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더불어 공동체 운동의 성격이 강했던 시민단체의 마을만들기와 물리적 시설중심의 중앙정부 주도형 마을만들기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공유하여 새로운 방향

의 마을만들기가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 및 시민단체는 주민의 일상 삶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주민참여를 요구하기 이전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가 가능한 상황인지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일상을 통해 어떠한 주민참여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마을의 리더와 주민,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행정과 전문가들이 이러한 이념과 발상을 참고하여 지역에 적절한 이념과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외부주도의 마을 만들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주민의 자생력을 키울 수 없고, 외부조직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그 내용이 좌우되는 위험성도 높으며, 지원조직의 역량에 따라 마을 만들기의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 및 시민단체 등의 지원은 주민의 문제제기에서 주민의 요청으로, 지원역할과 범위의 설정에서 주민역량의 개발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의 마을만들기에는 환경개선 위주로 편중된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방법,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주민생활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고르게 진행시켜 가는 다양한 방안과 지역의 잠재적 경쟁력을 지역 활성화와 연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마을만들기와 관련되는 행정전문가와 시민이라는 입장의 차이를 의식분석 결과를 통해 각각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마을만들기와 관련되는 다양한 주체에 대하여 세부적인 분류를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통한 포괄적 개념으로부터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마을만들기를 위한 상호관계적인 바람직한 모델구축을 제시하여 일정 지역에서의 적용을 통한 타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곽현근, 2008, 지역사회 주민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 센터 참여의 영향요인과 사회심리적 효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1):145-170.
- 김금숙, 2009, 한국노인의 희망유형 :Q 방법론 적용,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순은, 2010, Q 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1-25.
- 김용득, 강희설, 2008,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련 집단들의 인식유형 연구:Q 방법론의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60(1):29-51.
- 김홍규, 2007, P표본의 선정과 Q소팅, 주관성연구 15:6-18.
- 김홍규, 2008, Q 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 커뮤니케이션북스.
- 문경삼, 1987,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민족지성 제11호(1월).
- 목정훈, 박종현, 2008, 마을만들기 운영사례 비교연구 - 광주광역시북구와 동경도 세타가야구를 중심으로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33(4): 19-39.
- 박대현, 2009,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대불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영, 2008,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복기, 이재환, 2010,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들의 서비스에 관한 주관적 인식유형 연구 :Q방법론적 분석, 노인복지연구 50:27-48.
- 유수철, 2010, 도시 재개발사업에서의 주민참여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원식, 김남두, 황희연, 2008,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업주제 및 추진추체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33(4): 131-149.
- 정연철, 1986,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15.
- 조순제, 1997, 지방자치와 주민참여-근린조직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주최 민선자치2주년 기념심포지엄자료(P.4).
- 최현철, 2007, 사회통계방법론, 나남.
- 한승주, 2009, 성과급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정서적 대응,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manda Wolf, 2010, Q 방법론의 주관성, Journal of Human Subjectivity 8(2): 55-72.